

10여년 전...

응... 이제 집에 도착했어.

들어가서  
또 연락할게.

깡

...이제 와?



신우야! 놀랐잖아.  
거기서 뭐해?

.....

...남친이랑 노느라  
시간가는 줄 모르나봐?

요즘 엄청  
즐거워보이네.

.....  
미안...

아직 저녁 못 먹었지?  
얼른 차려줄...

깨  
랑

!!

... 너도 결국  
엄마랑 똑같아.

내가 학교에서  
무슨 일을 겪는지...  
아무 관심도 없어.

...!

바람나서  
집 나간 엄마처럼...



너도  
나같은 거 안중에도  
없는 거잖아!

.....



시, 신우야...



그런 소리 하지마...



난 어떤 일이 있어도...  
네가 우선이야.

신경 못 써줘서  
미안해...



신우는 애정결핍이 심한 아이였고, 나는 동생을 돌보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다.

신우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고,



엄마 역할까지 병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나 취미같은 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.

그래도 그런 삶을 후회해본 적은 없다.



내 보살핌 덕분에 신우는 제법 듬직한 어른으로 성장했..

제법 듬직한 어른으로 성장했..

신우의 집착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다.

이, 이신우!  
뭐하는 거야?!



쓰레기 새끼가...  
감히 내 누나를 넘봐?

뉘저기 싫으면  
씩 꺼져!